

미술과 함께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새빛으로 편집부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습니다.
팸플릿 한 부,
입장권 한 장이 역사가 됩니다.”



홍 제천을 지나 상명대
를 올라가는 길목, 팔
선생 주차장 끝의 좌
측편을 보노라면 7다스B 4개
의 초성으로 만들어진 간판이
눈에 띄인다.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 세검정지역에 20년을
살아오면서 곳곳이 달라지고 변
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재미난
간판에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해
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더라 이번 인터뷰가 기
대되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지난
해 11월 이명해서 새롭게 세검정교회에 등록된 김달진권사의 인터뷰의 첫 번째
일성은 근대미술의 역사였다.

“공연 전시회에 다녀오면 그냥 받아오거나 아니면 몇 천원에 구매가 가능한 팸
플릿, 혹은 전시회 티켓은 한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마는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진짜 미술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술 역사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3차례 전시회를 만들고 단행본들로 출판하여 미술 역사를 수집하고 보존하
는 일을 합니다. 첫 만남부터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김권사님의 말속에 힘

이 실려있었다. 또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근대미술사를 이만큼 모아둔 곳은 없습니다. 자신의 조부가 작가였음을 이곳 자료를 통해 알게 된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작가 자신들마저도 자신이 없는 자료를 이곳에서 발견 할 정도입니다.

김달진자료박물관에는 1891년 “조선아동화담, 1913년 김규진 ”육체필론습자첩 목판본 등 작가들의 단행본과 화집이 8천여 권, 1921년 발간된 서화협회회보 창간호등 정기간행물 300종 8300여 권, 조형교육 등 미술학회지등 57종 1200여 권 등과 논문 490여편 , 미술교과서 260여권, 팸플릿 1만4천여 점, 70년대부터의 일간 신문미술자료, 이중섭, 박수근등 작가들의 디폴터 360여명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도서부터 작품, 전시했던 화집등 말 그대로 아카이브(archive)를 넘어 라키비움(larchiveum;라이브리리(library) + 아카이브(Archives) + 뮤지엄(Museum))을 추구한다.

“이우환, 천경자 화백의 위작논란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품의 이력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비엔날레와같은 대형전시뿐 아니라 자료수집과 보존, 디지털화, 공공 수장고 확보등 미술계 토양을 튼튼히 하는 인프라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

김권사는 중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접한 여성잡지책의 밀레, 르느와르의 명화 한 장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지금의 지하1층 지상3층의 박물관에 연구소와 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40여년간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김달진권사는 현재 금성출판사



에서 발행하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성공인물로 실려 있으며, 2009년 올해의 미술상 미술문화 공로상과 201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2014년 한국 미술저작,출판상, 2016년 흥진기 창조인상, 한국 미술저작,출판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현재는 미술정보포털 달진닷컴(daljin.com) 온라인 미술서점 달진북(daljinbook.com), 한국미술정보센터 아트아카이브(artarchives.kr), 김달진 자료박물관(daljinmuseum.com)등 온라인 활동과 트위터에 28650명의 팔로워와 4천명의 페친을 가진 유명인사다.

특히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서울아트가이드는 미술정보잡지 무가지로 월간2만5천부를 발행하는 미술계의 독보적인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권사는 충북옥천에서 5남1녀의 막내로 태어나 초등4학년 때 어머니를 여읜 뒤 셋째형님을 따라 대전의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때부터 자료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작은 껌종이, 담뱃갑, 우표 등이었지만 우연히 여성지에 실린 세계의 명화를 접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본격적인 자료 수집은 서울에 올라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였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적으로 눈뜨기 시작한 것도 미션스쿨인 한영고등학교에 다니면서였다.

지금의 김달진권사를 있게 한 것은 특유의 열정과 끈기, 꼼꼼함, 그리고 성실함이 한 몫을 했다. 김권사는 고3때 당시 흥익대학교 1호 박물관장이었던 이경성 교수님을 만나 본격적인 미술관련일에 발을 내딛었다. 미술관련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관권에 찍힌 주소로 편지를 보냈고 첫 번째 만남에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스크랩북 10권을 보여주는 열정을 보였다. 이때의 만남이 나중에 큰 인연으로 이어졌다.

그 뒤 김권사는 인사동 전시장을 돌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전시계라는 잡지를 알게되었고 편지를 보내 일하고 싶은 의지를 피력, 당시 최학천 대표가 수습사



원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해, 미술 잡지계 일을 시작했다. 당시 전시계라는 잡지에서 지금의 아내인 최명자(현희)권사를 만났다.

김권사는 가족들이야기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한다. “나야 내가 원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괜찮았지만 박봉에 가정을 이끌기에 부족했던 어려움들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다.

김권사는 아내 최명자권사와의 사이에 딸 영나(34)와 아들 정현(31)을 두고 있다. 당시 전시계라는 잡지의 사무직원이었던 최명자 권사는 수습사원이었던 자신을 많이 이해해줬고, 평소 책을 좋아하고, 서예가 취미인 최권사의 장점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안가 1980년 언론사통폐합의 바람으로 잡지가 폐간되었고, 우연히 기사를 통해 1981년 이경성교수님이 퇴임 후 국립현대 미술관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소부라도 좋으니 미술관에서 일하

고 싶습니다”라고 또다시 편지를 썼다. 다행히도 김권사를 기억하고 흔쾌히 받아들여주셨고, 매주 금요일이면 인사동,사간동을 돌며 자료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체적 어려움이 찾아왔다. 당시 몸을 혹사한 탓인지 2011년

척추에 종양이 생겨 두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다. 정년퇴직을 미술관에서 하는 게 꿈이었지만 1996년 1월 불가피하게 미술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배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김권사는 가나화랑의 이호재사장과 인연이 닿아 자료실 실장으로 발탁되게 되었다. 그는 5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가나아트 잡지 편집회의에 참석했고, 기획물과 인터뷰 기사도 쓰면 점점 미술계에 입지를 넓히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이때 프랑스에서 가져온 파리스코프를 견본으로 포켓용 전시회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에서 독립한 뒤 현재 미술정보 잡지인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게 되었고 지금의 김달진 박물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1년 12월 마침내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고 이듬해 1월에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창간과 그해 9월 달진닷컴도 오픈했다. 그리고 2008년 40여년 가까이 수집한 자료를 모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또한 언제나 함께하시며 환란중에도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만들고 열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길 뿐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로 한가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